

# 學業成就度 增進을 위한 一研究

—학업습관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趙 義 淑\*

## I 部

1. 序 論
2. 研究의 必要性
3. 研究의 目的
4. 研究內容
5. 調查對象
6. 研究方法

## 7. 研究日程

- II 部 本研究의 理論的 背景  
III 部 實態調查
1. 實態調查 節次, 期間 및 內容
  2. 자료처리 및 해설
  3. 要約 및 結論

## I 部

### 1. 序 論

오늘의 대학사회는 과연 眞理를 探究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集團인가? 그렇다면 어떤 眞理—自然科學的 眞理, 人文科學的 眞理, 宗教的 眞理, 社會科學的 眞理 등—를 어떻게 탐구해서 어떤 社會를 통하여 그 理想을 實現하려는 것인가? 또는 심오한 眞理探求가 大學存在이유의 核心이고 大學人의 긍지라고 할때 어떤 것을 어떻게 탐구해야 할 것인가에 對한 回答을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오늘의 大學社會는 教育不在이며 眞理探求보다는 社會上昇을 위한 수단을 얻기위한 集團이라고 自他가 公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상품화, 획일화는 국가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原因들은 多樣할 것이지만 평소에 大學生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상담을 하면서 학업성취도를 점검해본 결과 教育하는 過程에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고 여겨져서 多年間 여러가지 형태의 檢査를 통해서 그 原因을 究明하려 했다. 大學生들의 장래를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方途를 모색하기 위하여 個別的으로 또는 集團으로 自己를 확인하는 方法을 導入하여 지도해 왔던 것이다.

社會化와 人格形成過程을 도와주는 일이 教育의 作用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類型으로 社會化되며 人格이 形成되어서 自我의 確立이 될때 그가 살아가고 있는 社會에서 인정받고

\* 人文大學 教育學 教授

또 공헌하며 성공감과 만족감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前提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本校에서 교단을 지킨지 20년에 접어들었다. 세태의 변동과 함께 社會·정치·경제의 급격한 변천과정 속에서도 오직 教育을 통한 人間改造一念만으로 信條를 삼고 1對 1의 학생지도에 더욱 執念을 가졌던 것은 내게 주어진 작은 소명감 때문이었다.

이제 構造論的時代에 사는 우리 大學人들은 구조적모순을 넘어서지 못한채 “나”와 “너”가 마주앉으면 不便해지고 도리어 大衆속에 끼어들어야 便해지는 時代에 살게되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당면한 教育의問題가 있는듯 싶다. 내가 主體로서 大衆속에 끼어드는 것은 不便하고 도리어 自信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군중 속에 묻어 버리고 안일을 꾀함으로 쉽게 軍중심리와 同化되어버려야 便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게 된것이다. 이러한 思考形成過程이 어떻게 이루어 졌을까? 이런 原因을 규명하지 않는 限 自信있는 主體로서 自己信賴가 不可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의 급격한 社會變動 속에서 제각기 殘廢없이 부딪치는 장애물들을 의식하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 밖에 없는 이 現實을 直視해 볼때 이같은 경쟁사회에서 靑年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價値觀을 심어주며 어떻게 힘을 길러 줄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우리 社會에서는 教育不在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教育의 場에 몸담고 있는 교직자 자신들의 입에서 教育不在를 自認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教育의 本質性이 왜곡되어 人間을 기른다는 것보다도 人間을 機械의 한부분으로 訓練시켜서 生産性·經濟性이 높은 人間機械로 만든다는데 더욱 意味를 두고있는 現實을 누구도 否定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류의 歷史가 지속되는 한 人間の 最高目標가 生存權獲得을 위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生의 目標인 本質的인 행복을 享有하기 위해서 眞·善·美·聖의 統合된 價値있는 人生을 영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순된 사회속에서도 가치있는 人間生活을 누릴 수 있는 社會人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재차 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教育하는 일은 결국 人間の 모든 知性的·感性的·精神的 總力量을 自律的으로 驅使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本質이다. 또한 모든 力量을 傾注할때 비로소 바람직한 成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信念을 더욱 굳게 할 수 밖에 없다.

教育은 人間の 永遠한 번영에 對한 祈願에서 出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教育의 重要性은 인식하고 있으나 어떤교육을 통해서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한 教育은 언제까지나 혼란과 궁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 個人이건 家庭이건, 國家이건 間에 方向性이 올바르지 않으면 즉 人倫의 法則에 合法的이 아닌 人間の 本質性에서 멀리 떨어진 方向으로만 치닫게 될때 도리어 教育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罪악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大學教育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일은 매우 重要한 일이라 여겨진다.

## 2. 研究의 必要性

급격한 社會變動과 함께 發生되는 大學教育의 質的問題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1979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청소년중에 大學生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에 불과했지만 1985년말 現在 大學生의 비율은 약 23%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같은 大學進學 희망자의 증가로 大學入試制度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現行 入試위주의 高等學校 教育에 있어서도 학업지도에 혼선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암기위주 및 획일적인 사고방식만을 강요하는 주입적 教育은 大學教育의 本質性에 비추어 볼때 研究태도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발전적적응을 저해하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게 되었다.

학습습관과 학업성적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선진 여러나라에서 적지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Rust Ryan(1955)이 학업성취와 학습습관이 정비례하여 相關關係가 있음을 연구한바 있으며, 또한 Steinberg, Segel 및 Levine(1967)의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기 조성 및 학습태도와 학업성취간에는 정비례적 相關關係가 있다고<sup>1)</sup> 보고했다. 학습습관의 要因을 分析해보면 個人的 性格特性과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실제로 現場에서 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教育者들도 學習習慣이 學業成績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등한시하거나 알면서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大學生을 中心으로한 학습습관과 학업성적에 관한 實態調査研究를 通하여 문제의 소재를 밝혀보는 일이 學業指導의 方向과 學業成就의 本質性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1967년 이후 每年 本校入學生에게 실시한 각종 심리검사의 결과를 학생지도의 한방편으로 응용해 왔으나 학업성적과의 연관성이 또다른 요인과 연관을 맺고 있지 않는가 탐색해본 결과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와의 相關性을 연구할 必要性을 알게 되었다.

또 이 研究는 本人이 心理—社會環境이 性格形成과 變容에 미치는 영향(1970), 1972년도에서 75년까지의 入學生을 中心으로 연구한 “한국대학생의 性格特性的 유형과 그 要因에 관한 研究”에서 언급한 바 있는 “性格과 自我概念과 학업성적과의 相關性을 研究한다.”와 一實된 연구임을 밝혀둔다. 또한 1981년에 發表된 연구논문—社會化와 人格形成(학사경고자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自我概念의 要因研究)—의 연속적인 연구문제이기도 하다. 特히 교사자질 향상을 문제해결의 急先務로 생각할때 학업성적의 결과에만 偏向하기 쉬운 制度를 보완할 수 있

1) 이 관용, 원 호식, 학생연구 제 7권 2호 서울대 학생지도 연구소(1970)  
재인용 Steinberg, M. Segel, R. H, and Levine H. 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Academic Success J. Ed'l and psy"l Meas. 1967, Vol. 27.

는 具體的 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학습습관검사에 나타난 各要因을 分析하고 學業成就와 的 相關性의 程度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診斷型現場研究(Diagnostic type action research)의 형태를 빌어서 시도된 敎育 實踐改善을 위한 한 研究이다.

診斷型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의 問題行動에 대하여 그 原因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治療 方法을 강구하여, (假設) 강구한 治療방법을 실천함으로써 問題행동을 矯正하는 研究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 種의 연구는 事例研究(case study)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으나 大學敎育의 本質性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오늘의 大學社會에서 學業성취도에 만족할만한 成就感을 맛보지 못했을때 야기되는 社會的態度가 社會問題를 유발시키게 됨을 否定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해결의 한 方案으로서 檢査紙를 使用하여 問題의 所在를 밝힐 必要性을 절감하게 되었다.

### 3. 研究의 目的

大學社會의 現實을 直面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問題를 제기하여 研究의 目的을 導出해 보려고 한다.

첫째, 大學의 門을 통과한 學生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學問을 하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전공분야를 찾아가는 길에 만족할만큼 기초가 다져져 있는가?

셋째, 만족하지 못한다고하면 무엇이 그 原因이 되고 있는가?

네째, 外的要因들이 어떻게 學業成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다섯째, 學業성취도에 있어서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될 때 따르는 行動特性이 무엇인가? 위와같은 의문을 풀기위한 問題해결의 方法으로서 다음과 같은 目的을 設定하였다.

첫째, 學業성취도를 증진시키는데 動機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둘째, 學業成績을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시킬 수 있는 學習要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셋째, 餘多要因들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이 있는가?

넷째, 학습습관검사에 나타난 결과와 學業성적의 水準이 과연 상관계수가 있는가?

### 4. 研究內容

(1) 동일집단의 학습습관요인과 전공학과별 학년별 學業성적과의 相關關係 조사

(2) 연도별 학과별·要因別 平均 백분위 점수 산출

(3) 학습습관검사 백분위 점수의 75點以上者와 25點以下者와 學業성적 백분위 점수의 비교,

2) 金宗西, 現場研究法의 理論과 實際, (서울; 배영사, 1968), pp. 86~88.

(4) 83학년도 입학후

(ㄱ) 정상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과수업을 진행한 재학생의 성적조사

(ㄴ) 군입대자와 군복무前 성적과 복무後의 복학자의 학업성적 조사

(5) 학업성적이 동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6) 학업성적이 學習要領과 어떤 相關性이 있는가?

(7) 학업성적에 미치는 餘多要因은 어떤것이 主要要因인가?

(8) 학업성적에 가장 영향력있는 要因이 무엇이며 종합적인 學習習慣檢査에 나타난 영향이 學業成績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5. 調查對象

1980~'84년도 入學者中에서 교직과목을 최소한 2학기 이상 수강 또는 6학점이상 이수한 者

6. 研究方法

(1) 文獻研究—1981년도 발표논문 “社會化와 人格形成”中的 學習習慣形成에 關한 연구로 동기·학습요령 또는 학습습관 형성에 必要한 餘多要因들을 研究한다.

(2) 基礎資料研究—교무처 학적과의 協力下에 학업성적을 조사 통계처리한 자료를 갖고 비교연구하여 相關係數를 산출한다.

(3) 實態 調查

ㄱ) 1980~84학년도 入學者中 교직과목이수자를 對象集團으로 한다.

ㄴ) 學習習慣檢査를 선정한 對象에게 실시하고 자료처리 후 분석 해설한다.

7. 研究日程

本研究는 1980년부터 교직과목이수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여 1984년까지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연구후 해설과 제언으로 本論文을 끝맺었다.

Ⅱ部 本研究의 理論的 背景

1. 教育力の 強化

學業成就度を 올리는 방안으로 첫째 社會的環境(가정, 학교, 일반사회)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점과, 둘째로 학교, 경영자나, 교사, 학생들 사이의 人間關係가 상호이해적이며 協力的인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教育力이 強化되면서 繼續性과 忍耐性, 그리고 誠實性을 가지고 教育的 效果를 올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해왔다.

## 2. 相談指導

學業向上을 위한 시도는 “相談關係는 成就類型을 變化시키는 促進劑가 될 수 있다고 主張한 학자(Roth & Meyersberg 1963) 또 相談이나 精神治療가 학력의 伸張에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研究도 있다.

本人이 지난 20여년간 學生相談의 經驗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문과 한 남학생에게 一般性格檢査(김기석 저)를 1학년 입학생과 함께 실시한 바 그 결과 支配性, 責任性, 情緒的安定感(Emotional Stability), 社會性 그리고 총점(총점 자체는 우울감과 열등감을 표시함)이 모두 마이너스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중간고사 시험결과는 백지를 내었으므로 일단 면담해 주기로 하고 그 학생을 연구실로 불렀다. 그 후 실시한 人性檢査의 결과에도 M(男向性) S(社會性) 점수가 負點으로 나왔으므로 욕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一致度 점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격진단검사, 흥미검사 등을 차례 차례로 하나씩 주어서 응답해 가지고 오게하면서 反應하는 태도를 관찰하고 상담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학생은 입을 열어서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았다. 말 없이 연구실에 와서 앉았다가 가곤 했으며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1학년 1·2학기 계속 수강신청을 했으나 취득하지 못했다. 다만 검사지만은 꼬박 꼬박 기록하여 가지고 왔다. 檢査紙를 하나씩 해올때마다 해석을 해주고 상담을 해줄 수가 없었다. 어떤 一貫된 요인이 발견되지않고 계속 문제의 소재를 밝혀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自我概念檢査와 가정환경조사등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MMPI(多面的人性檢査)검사를 한 결과 自己執着性점수를 가지고 學生과 어머니의 宗教的 關係(불교)에 신앙적문제(어머니의 계시로 인해서 出生된 존재로서의 나)가 있다는 것을 놓고 相談이 계속되었다. 그 후 정상적인 학생으로서 한 人間으로서 自己自身을 받아들여지게 되자 3학년 초부터 학점 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정상적인 交友關係가 이루어지면서 학업성적도 급속히 向上되고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을 큰 무리없이 취득할 뿐만 아니라 中上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相談프로그램에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복합시키므로써 만족할만한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取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sup>3)</sup>

Stebens(1967)는 독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Morgan & Deese(1957)는 工夫 스케줄을 어떻게 짜고 진행하느냐가 學習效果를 크게 결정한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自我概念과 自己統制力의 不足이 학업부진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학생자신이 학습실제의 현황을 기록케하는 간단한 자기 관찰법도 학력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4)</sup>

3) 李炯得, 金滄琛, 學業不振大學生들의 心理的 特性과 學習習慣의 變容 및 自己統制力의 발달이 그들의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 指導相談, 創刊號, 1973. 3. 啓明大學學生指導研究所, p. 69.

4) 李炯得, 金滄琛, 앞의 책, p. 69.

金滌琛의 실험적 연구도 學業 成就度 向上을 위한 것이었으며 좋은 效果를 나타내 주고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사가 진단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성공적인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같은 학생들을 위한 선택적인 교수방법을 가지고 교수자료를 동원하더라도 기대한 학습 성취도를 낳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學習不可能의 非教育的 原因이 주로 신체적, 심리적 혹은 환경적인 것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한다.<sup>5)</sup>

학업성취도는 측정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學業成就度 增進을 위한 연구도 있었으나 學習者의 個人差가 아주 심하고 우리나라의 劃一化된 學校制度和 교육과정 편성 및 교사의 교수방법의 연구의 제한성과 學習資料의 欠損 또는 不充分한 상태에서 적절한 方法이 定着되지 못하는데는 또 다른 原因이 있을 것이다.

한 학생의 학습곤란도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의 學習習慣, 學習動機, 學習態度, 學習能力 등 기타 제반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분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민중사회에서 個人差를 인정할수록 더욱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어떻게하면 보다 좋은 학습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학생의 평가자료의 分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情報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教師의 心理學的 素養이나 지도가 있으면 좋은 대답을 줄 수가 있다고 하였다.<sup>6)</sup>

### 3. 學習動機

內面化된 학습동기는 곧 학생들의 학습습관으로 나타나며 곧 학업성취도를 증대시킨다고 생각된다. 학습자의 학습방법 및 學習習慣을 바람직하게 형성시켜주는 일은 최대의 학습효과를 올리는 한 要因이 된다.

Atkinson(1965)은 학교학습에 있어서의 動機의 源泉을 다음과 같이 羅列하고 있다.

- (1) 권위(부모나 교사)의 願에 순종하기 위한것
- (2) 부모나 교사의 따뜻한 認定과 養護를 얻기 위한것
- (3)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
- (4) 知的課業의 挑戰에 능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위한것
- (5) 長期的인 目標의 한 단계를 채우기 위한것
- (6) 他人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것이 모든 것을 합쳐서 學習動機라고 부르며 社會的動機나, 自我統合的動機, 好奇心 혹은 認知的動機(이상 모든 動機들은 人間의 本質적 욕구에 속

5) 朴商浩, 金龍來, 教育評價, 教育學講義叢書(서울; 世光公社, 1979) p. 106.

6) 林鎮權, 教育評價(서울; 實學社 1976), pp. 341~342.

한다)중 어느것이 學習成就에 가장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하는 문제이며 動機의 強度 여하에 학습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성 보다 體系的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7)</sup> 動機는 行動의 原因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이며 성공적으로 完成된 行爲의 심상들이다. 또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8)</sup>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行動을하고 방향잡고 유지하는 힘의 總合이다. 따라서 동기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目標指向的 에너지의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상태를 포함함으로써 行動의 活性化作用 뿐만아니라 目標指向性도 갖는다.

金基錫의 학습습관검사의 해설에 의하면 動機要因(Motivation)은 학습에 대한 意慾, 動機, 態度, 目的意識, 意志의 정도를 표시하며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이 높은 학생이라도 학습에 대한 동기가 약하면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며 그 반대로 비교적 지능이 낮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강한 학습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성적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知能指數와 더불어 學習動機의 程度는 學生의 성적을 결정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M점이 높은 학생은 自身の 진로에 대하여 明確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있으며 多少의 難關이 있어도 克服하여 나가며 雜念이나 空想에 사로잡힘없이 學習에 淸神을 集中시킬 수 있는 학생이다.

M점이 낮은 학생은 自身の 현재의 처지나 장래에 관하여 확실한 이해와 洞察이 없는 無目的的 또는 無氣力한 사람이며, 사소한 장애에도 곤란감을 느껴서 工夫를 中斷하게되며, 쉽사리 정신이 산만하게 되어 딴 생각이나 일에 사로잡혀 持續的 學習을 이루지 못한다.<sup>9)</sup>

教授方法과 학습요령(기술적요인: Techniques), 학습 및 교수방법이 적절할 때 知的 出發點行動의 결손이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學業成就水準이라든가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된다. 교수방법은 學生의 學習方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교수방법이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을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學生의 個人差를 고려한 학습방법을 처방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학습도중에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학습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0)</sup>

학습요령 즉 技術要因(Techniques)은 학습에 關한 기술과 方法을 表示하는것으로써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과 학습동기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工夫에 對한 요령이나 기술이 탁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성적이 좋은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따라서 기술요인은 學習心理學에서의 효율적 학습의 法則과 부합된다.

7) 李炯得 外, 앞의 책, p. 67.

8) 洪承稷, 社會心理學(서울; 박영사, 1983), pp. 62~63

9) 김기석, 학습습관검사 실시요강(서울; 코리아테스팅서비스, 1978), p. 4.

10) 경범모, 이성진, 학업성취의 요인, 교육과학신서(서울; 교육출판사-1981, ) p. 152.



- 즉 (1) 機械的으로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理解하여 가면서 독서하는것  
 (2) 計劃的 學習  
 (3) 학습중에 適當한 휴식을 취할것  
 (4) 反覆學習  
 (5) 積極的 回想(學習하는 내용을 머리속에서 계통을 세워서 回想하는 過程)  
 (6) 過剩學習(예컨대 한번 기억하였다고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번이고 기억하여 보는것)  
 (7) 關聯學習(학습한 어떤 내용을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연관을 시켜보는 過程)  
 (8) 重要한 부분에 밑줄치는 습관  
 (9) 適當한 시간 배정  
 (10) 부분학습에 앞서서 전체학습을 하는것 등이다.<sup>11)</sup>

이러한 효율적 학습방법을 학습자가 터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는 교수내용의 조직적 편성과 교수를 통해서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수업하는 동안에 함께 교육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外國의 여러학자들의 學業不振에 관한 體系의이며 綜合的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부진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아서 家庭背景, 性, 宗教, 高等學校의 性格이나 學級의 크기, 特別活動에의 참가정도 및 父母의 직업등에서는 특성적인 차이가 별로 없고 그대신 독해력과 바람직한 學習習慣과 能力에 관한 自我概念등에는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그와같은 결과는 美國社會안에서의 父母와 子女關係가 情緒的으로 獨立되었을 뿐만 아니라 個別的인 役割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라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背後에서 너무나 많은 非教育的인 影響력을 안팎으로 받고있으므로 뒤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결과가 意味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습관이란 학습할 때 취하는 一貫된 行動樣式(mode of behavior)를 말한다. 김기석(1968)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습관과 학업평균성적과의 相關이 +.45로서 학업성적 예언에 知能다음으로 좋은 예측요인이 된다고 하였다.<sup>13)</sup>

#### 4. 학습습관 형성의 過程

“학습을 위한 학습”의 概念을 Gagné의 學習構造에 맞추어보면 前者는 後者の 基底部分에 속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이 되는 셈이다. 결국 두 概念은 出發的 行動의 類層的 記述을 可能케하는 셈이다라고 한것은 習慣形成의 過程을 關聯能力的 階梯가 형성되는 것

11) 김기석, 앞의 책, pp.4~5.

12) 李炯得 外, 앞의 책, p.69.

13) 김기석, 앞의 책, p.13.

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4)</sup>

出發的 行動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우선 두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면 첫째는 학습자에게 內在하는 요인이고, 둘째는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外的要因이다. 內在的要因은 知能, 학습동기, 발달특징, 인성특징등을 들 수 있고, 外的 要因으로서는 교사특징, 교수법, 교육 내용 및 학습자료, 학습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 5. 知能和 學業 성적

知能檢査의 성격으로 보아 IQ와 學業 성적간의 상관은 높게 마련이다. 그러나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I.Q의 學業 성취예언도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정배경 I.Q., 學業 성적<sup>15)</sup>

IQ 자체와 學業 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것으로 믿어지는 가정배경 혹은 가정상황을 연구한 Barbe(1956)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知能發達에 영향을 주는 過程要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成就動機를 위한 壓力
- (2) 言語發達을 위한 壓力
- (3) 一般學習을 위한 配慮

Dave의 연구(1963)도 여섯가지 환경과정변인을 들었다.

(1) 成就壓力 (2) 家庭에서의 言語 모델 (3) 가정에서의 學習助力 (4) 넓은 환경의 여러가지 부면을 探索하도록 하는 자극 (5) 가정내에 있어서의 知的 興味와 活動 (6) 가정에서 강조하는 學習習慣등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환경의 전체지수와 전체 學業 성취점검사의 총점과의 相關이 +.80이라는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한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나 社會經濟的地位와 學業 성적과의 關係에서는 +.50 혹은 그 이하로 나타난것과는 비교가 된다고 하였다.<sup>16)</sup>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학습습관 형성을 위한 壓力이 가정배경에서 영향을 받으며 自我概念 형성도 가정배경이 절대적으로 相關성이 크다고 판정될때 한국가정의 비교육적 환경 또는 부모의 문화수준의 격차, 교육적 배려의 不足이 학습습관 형성상 문제가 될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學業 성적의 결과에만 급급할 때 子女들의 性格形成에까지도 문제가 생길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게 된다.

### 6. 學習態勢 혹은 態度

學習習慣 形成을 위해서는 學習態勢(Learning Sets)라는 概念을 생각해 보아야하겠다. 학습

14) 李榮德, 教育의過程(서울; 培英社, 1977), p. 52~53.

15) 李榮德, 앞의 책, pp. 59~60.

16) 李榮德, 앞의 책, p. 62.

자가 무엇인가 학습하는 것은 生活 그 自體라는 개념이 익히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생활경험을 쌓는 동안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활경험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또 경험 쌓는 態勢 혹은 態度가 어떠한에 따라서 긍정적인 건전한 습관이냐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태도냐가 드러나게 된다. 학습태세라는 말을 쓴 Decco(1968)는 두 종류로 설명하고 하나는 “학습을 위한 학습”(Learning to Learn)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구조(Learning Structure)라고 하였다.<sup>17)</sup>

成취에 있어서의 점진적 혹은 누적적 향상을 “학습을 위한 학습”이라고 하였는데 즉 한 學習課業을 수행하는 동안에 얻어진 一般化 혹은 轉移價値가 있는 事項의 학습은 다음 학습을 위한 학습이 된다는 개념이다.<sup>18)</sup>

### 7. 學業不振兒의 生態

부산 모 중학교 교사 신봉균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평준화이후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異質集團의 一律化 授業( 획일적 )으로 인한 학습부진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교사가 105명에게 조사한 질문지 내용을 살펴 볼 때 싫어하는 교과목이 물상(36), 수학(29), 그리고 영어(20)이며 그 이유는 교과내용이 어려워서(43) 또는 자기개성에 맞지않다고 생각되어서(40)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교과내용이 어렵다는 것은 학생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담당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sup>19)</sup> 즉 교사의 지도능력과 不足이나 또는 교수자료 준비의 부족, 또는 교육의 熱意가 없어서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갖지못한다는 것은 教師養成教育에도 큰 責任이 있다고할 수 있다.

教育現場에서는 교육의 目標가 知的領域 함양에만 있는것처럼 學業成就度의 評價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情意的領域은 知的成취와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한쪽의 평가를 통해서만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본다.

Bloom(1971)은 이런 현상을 학업성취의 성공적인 경험과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과는 그 因果關係가 분명치않으나 성공적인 학업성취의 경험은 학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한다고 했다.<sup>20)</sup>

學業不振의 原因을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을것이지만 本研究에서는 本人의 先行研究의 계속적 探索이므로 學習習慣檢査紙를 통한 原因 究明을 主로하였다.

17) 앞의 책, p. 52.

18) 앞의 책, p. 52.

19) 신봉균, 학업부진 最少化를 위한 指導技術, 教育研究 10월호(서울; 韓國教育生産省 研究所, 教育研究社, 1977), pp. 87~90.

20) 朴慶淑, 李蕙先, 학업에 대한 自我概念, 態度, 學習習慣檢査 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教育 3권 1호(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6. 6.), p. 89.

## 8. 餘多要因群(R요인 : Remainder)

이 요인은 M요인과 T요인을 제외한 諸要因의 複合體이다. 이 問項은 22個의 各 問項은 독자적으로 성적의 高低를 決定하는 行動特性을 表示한다. 이 요인군에는 다음과 같은 學習 行動要因으로 構成되어 있다. 즉 (1) 能力要因(讀書能力, 表現能力, 要約能力, 理解能力 및 反應速度 등)이고 (2) 環境要因(학습활동이외의 諸活動의 過多로 인한 장애, 過度한 친교관계로 인한 학습장애 등)이며 그리고 (3) 性格要因(情緒의不安定, 神經過敏 지나친 태평주의나 氣分主義 등)이다.<sup>21)</sup>

## 9. 學業成就

Atkinson은 거의 성취행동이론에서 성취목적에 접근하려는 性向은 세가지 要因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성취욕구 혹은 성공에 對한 動因, 성공확률, 성공의 자극적 가치이다.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모든 성취과업을 싫어하며 또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Weiner는 지적하고 있다.<sup>22)</sup>

학업성취를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과제의 通達程度라고 할 때 학업의 수행자인 學生自身이 얼마나 그 부여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학업성취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고 본다.

학업성취와 직접적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역시 學生이 처해있는 환경적 요소이다. 물론 個人의 학업성취의욕은 自身の 自己志向의인 努力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努力 역시도 이미 환경의 지배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다.

家庭環境과 學業成就와의 關係性에 있어서 家庭의 文化시설·父母의 學力·父母의 직업 등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本研究의 통계적처리 해석에서 부연설명을 加하겠지만 軍除隊後 복학자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現象은 바로 단순한 가정환경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 個人이 처한 社會的 經濟的인 動機 透發의 要因에 起因됨을 시사해 준다.

## Ⅲ 部 實態調查

### 1. 實態調查節次, 期間 및 內容

#### (1) 對象者 決定과 조사내용

ㄱ) 1980~84學年度 入學者中 교직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결정하고 910명에게 검사지를 연도별로 분배하였다.

21) 김기석, 앞의 책, p. 5.

22) 정범모 외, 教育評價, 現代教育叢書 4(서울; 大韓時報社, 1960), p. 341.

- ㄴ) 두학기 동안 6학점이상 취득한 자의 성적 一覽表를 作成하고
  - ㄷ) 이들의 學習習慣檢査의 結果를 점검하여 整理한 후
  - ㄹ) 學習習慣의 要因과 學業成績과의 相關度를 산출하였다.
- (2) 검사지 분배시기 및 회수

ㄱ) 學習習慣檢査紙를 1980學年度 入學者부터 83學年度 入學者까지의 學生들에게는 2學年 1學期때(매년 5月 30日부터 6月 11日까지) 약 2週間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84學年度 入學者들에게는 85년 10월(2학년 2학기 때)에 실시했다. 검사지 회수현황은 <표 I>과 같다.

<표 I> 검사지 회수 현황

연도	학과	영문	철학	사학	국문	독문	불문	사사	상·경	수학	물리	화학	공교	계
'80		32	2	23	—	—	1	1	21	8	—	1	1	90
'81		47	13	25	17	7	18	4	10	4	5	9	—	155
'82		5	—	33	22	13	14	11	20	13	12	11	13	171
'83		47	4	23	29	13	13	20	17	13	18	8	—	205
'84		42	—	24	29	20	24	—	—	—	—	—	—	139
계		173	19	128	97	53	69	36	68	38	35	29	14	760 (83.5%)

(표-I의 해설)

- ① 80학년도 국, 독, 불, 물, 화학과는 교직이수 승인 전이며 불문과 1명과 화학과 1명은 他科에서 전과 하거나 2학년 과목을 이수한 3학년 학생이다.
- ② 81학년도 공교과는 미실시과이며
- ③ 82학년도 영문과 5명은 다른학과와 함께 수업한 학생수이며 영문과 학생의 수업반에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④ 82학년도 철학과 이수자부터는 교직이수가 폐지되고 교양선택으로 이수한 학생이 受檢對象이 되었으며
- ⑤ 83학년도 공교과는 폐과 됨으로 이 숫자가 없었다.
- ⑥ 84학년도는 人文大에만 수업이 있었으므로 自然大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ㄴ) 회수율은 83.5퍼센트(760명)로 비교적 높은편이므로 일단 신뢰도를 인정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표집집단의 사례수가 일정치 않고 검사점수 또한 그 차이를 심하게 나타내었으므로 各要因別로 平均點數를 내고 표준 편차를 구하여 <표 II>와 같이 비교하였다.

## 2. 자료처리 및 해설

- (1) 학습습관검사의 연도별 학과별 요인별 평균백분위점수의 비교표를 작성하였다(표 II)

〈표 II〉 연도별·학과별·요인별·평균 백분위 점수 비교표

학과별	요인별	연도별		영문과	철학과	사학과	국문과	독문과	불문과	사사과	상·경	수학과	물리과	화학과	공교과	계	
		M	SD														
'80	M	M	60.78	—	51.52	—	—	—	—	—	58.86	41.5	—	—	—	—	
		SD	31.95	—	30.29	—	—	—	—	—	31.13	30.53	—	—	—	—	30.93
	T	M	58.38	—	51.47	—	—	—	—	—	68.11	60.87	—	—	—	—	—
		SD	26.40	—	27.62	—	—	—	—	—	28.74	24.94	—	—	—	—	26.92
	R	M	55.25	—	54.0	—	—	—	—	—	58.23	53.50	—	—	—	—	—
SD		27.02	—	31.87	—	—	—	—	—	28.88	30.16	—	—	—	—	29.48	
T <sub>0</sub>	M	62.10	—	57.08	—	—	—	—	—	62.76	56.75	—	—	—	—	59.67	
	SD	29.50	—	31.85	—	—	—	—	—	29.02	24.82	—	—	—	—	28.80	
	N	32	—	23	—	—	—	—	—	21	8	—	—	—	—	84	
'81	M	M	64.98	63.42	69.72	86.47	60.42	65.35	68.0	67.3	46.5	45.4	66.77	—	—	—	—
		SD	27.70	33.38	25.65	13.41	27.85	31.09	28.57	31.65	26.53	23.66	28.52	—	—	—	27.09
	T	M	59.73	60.50	62.1	68.77	45.71	61.5	86.5	70	39.75	55.8	64.77	—	—	—	—
		SD	30.25	32.37	26.62	20.42	24.46	27.92	4.38	23.52	31.02	11.14	26.52	—	—	—	23.51
	R	M	57.11	51.23	62.24	73.70	57.71	48.91	62.5	57.5	54.75	46.6	56.11	—	—	—	—
SD		31.82	37.07	24.54	25.42	28.52	32.25	20.32	31.97	33.32	16.46	29.87	—	—	—	28.32	
T <sub>0</sub>	M	65.75	58.96	71.04	82.35	65.82	66.14	85.0	68.0	47.75	53.4	71.9	—	—	—	66.93	
	SD	29.45	33.78	23.40	15.08	24.89	27.91	12.78	30.70	32.80	16.28	25.75	—	—	—	24.70	
	N	47	13	25	17	7	14	4	10	4	5	9	—	—	—	155	
'82	M	M	48.60	—	53.96	61.29	60.84	48.77	57.22	59.10	47.92	57.25	64.90	61.53	—	—	—
		SD	41.14	—	32.33	30.58	29.87	34.45	22.63	27.16	32.86	24.66	33.86	30.53	—	—	30.92
	T	M	36.5	—	52.69	53.74	59.30	48.13	54.27	57.50	48.69	70.91	68.81	61.00	—	—	—
		SD	28.00	—	25.21	28.84	31.04	26.10	26.84	27.51	29.48	20.95	24.32	20.94	—	—	26.29
	R	M	41.8	—	48.60	48.80	57.84	51.66	36.22	46.75	45.23	37.41	50.22	51.23	—	—	—
SD		36.27	—	31.23	30.03	31.28	31.06	68.32	36.11	35.12	27.76	32.57	27.16	—	—	30.72	
T <sub>0</sub>	M	49.5	—	58.68	55.8	61.69	49.66	56.18	62.60	51.92	60.66	66.45	60.15	—	—	58.02	
	SD	40.16	—	30.40	27.5	29.34	29.33	30.04	28.50	30.28	24.02	31.55	27.97	—	—	29.92	
	N	5	—	33	22	13	18	11	20	13	12	11	13	—	—	171	
'83	M	M	63.44	71.62	74.00	54.25	53.34	49.07	41.92	53.17	49.38	51.55	35.12	—	—	—	—
		SD	30.13	39.96	21.70	81.77	28.82	26.53	31.60	29.80	26.74	30.25	30.60	—	—	—	29.77
	T	M	61.35	57.12	61.22	56.06	47.80	62.53	43.80	48.00	36.84	53.05	36.25	—	—	—	—
		SD	28.38	35.48	27.17	26.72	27.17	28.26	26.55	28.05	33.64	22.93	26.97	—	—	—	28.30
	R	M	52.23	56.00	53.86	51.41	58.30	52.76	35.68	32.00	26.42	43.16	49.25	—	—	—	—
SD		32.48	32.52	30.13	30.16	25.54	23.00	30.93	31.03	28.20	30.16	34.47	—	—	—	29.87	
T <sub>0</sub>	M	64.04	73.25	72.08	60.31	58.65	56.38	43.15	48.11	42.07	53.50	41.62	—	—	—	55.74	
	SD	30.87	41.25	21.04	28.88	26.24	25.07	30.37	28.98	29.88	27.6	27.92	—	—	—	28.92	
	N	47	4	23	29	13	13	20	17	13	18	8	—	—	—	205	

' 84	M	M	54.92	—	20.04	51.29	58.09	55.54	—	—	—	—	—	—	—
		SD	33.34	—	28.48	34.37	29.24	23.83	—	—	—	—	—	—	30.85
	T	M	55.21	—	46.95	54.89	61.25	60.41	—	—	—	—	—	—	—
		SD	29.14	—	23.91	33.19	23.40	24.08	—	—	—	—	—	—	26.74
	R	M	48.23	—	45.27	50.27	53.75	43.83	—	—	—	—	—	—	—
SD		31.43	—	31.69	32.37	30.90	27.08	—	—	—	—	—	—	30.69	
T <sub>0</sub>	M	54.36	—	48.58	54.18	67.20	65.34	—	—	—	—	—	—	57.93	
	SD	31.48	—	30.25	34.10	20.89	23.41	—	—	—	—	—	—	28.01	
N		42	—	24	29	20	24	—	—	—	—	—	—	139	
계	M	SD													29.91
		SD													26.35
	R	SD													29.82
		SD	32.29	37.52	27.37	26.39	25.34	26.43	24.39	29.3	29.47	22.63	28.41	27.97	28.07
	N		173	17	128	97	53	69	35	68	38	35	28	13	754

(—표시는 미실시) · 사례수가 4이하인 것은 제외함.

$$(SD = \sqrt{\frac{E(\bar{x} - x_i)^2}{N}})$$

표집단의 사례수가 일정치 않고 검사점수 또한 그 차이를 심하게 나타내었으므로 各要因別로 平均點數를 내고 표준 편차를 구하여 <표 II>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 II의 해설)

① 80년도 자료에서는 철2, 불1, 사사1, 화1, 공교1의 6명을 제외하고 표준편차의 평균을 내었으며

② 81, 83년도는 공교과만 제외하고

③ 82년도는 철학과만 제외하고

④ 84년도는 영, 사, 국, 독, 불문학과외의 표준편차의 평균을 내었다.

⑤ 연도별로 검사점수의 총점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비교해 보면 59.67(SD 28.80), 66.93(SD 24.70), 58.02(SD 29.92), 55.74(SD 28.92) 57.93(SD 28.01)으로 80년도에서 84년에 걸쳐서 학습습관형성이 비교적 보통인 학생이 교직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백분위점수 75점과 25점 사이에 속하는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그러나 표준편차에 있어서 철학과 37.52, 영문과 32.29, 수학과 29.47, 상경대 29.3, 화학과 28.41, 공교과 27.97, 사학과 27.37, 불문과 26.43국문과 26.39, 독문과 25.34, 물리과 22.63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즉 표준편차값이 적을수록 동질집단의 학과임을 알 수 있다.

⑦ 동기요인(SD 29.91)과 여다요인(SD 29.82)은 비슷하나 학습요령(SD 26.35)은 타요인과 비교해 볼 때 작은 수임을 보여주는 것은 학습습관 형성과정에서 학습요령이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며 동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 학업성적 평균평점의 백분위 점수 환산표

평 점	점 수	평 점	점 수	평 점	점 수	평 점	점 수
4.4	98	3.5	87	2.6	78	1.7	69
4.3	97	3.4	86	2.5	77	1.6	68
4.2	96	3.3	85	2.4	76	1.5	67
4.1	95	3.2	84	2.3	75	1.4	65
4.0	94	3.1	83	2.2	74	1.3	63
3.9	93	3.0	82	2.1	73	1.2	62
3.8	90	2.9	81	2.0	72	1.1	61
3.7	89	2.8	80	1.9	71	1.0	60
3.6	88	2.7	79	1.8	70		

(2) 학업성적의 평균평점 점수는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였다.〈표 III〉

(3) 인문대(G1)와 자연대(G2)의 학습습관검사점수와 학업성적의 상관도 산출.

(ㄱ) 학습습관이 학업성적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집단을 설정하였다.

(ㄴ) 5個年中 인문·사회·상경·자연대의 모든학과에 걸쳐서 대상자가 있으며 또한 가장성적의 차가 많은(81) 연도를 표준집단으로 선정하고 人文大의 入學者中 학습습관검사 총점평균이 제일높은 영문과(64.04)를 G1으로 정하고 제일낮은 자연대(45.73)를 G2로 정하여 비교한다.〈표 IV〉

〈표 IV〉 G1, G2의 각요인별 비교표

요 인	집 단	G1	G2	비 고
동 기	M	63.44	45.00	dM : 18.44
	SD	30.13	29.19	
학 습 요 인	M	61.35	42.04	dM : 19.31
	SD	28.38	27.84	
여 다 요 인	M	52.23	39.61	dM : 12.62
	SD	32.48	30.94	
총 점	M	64.04	45.73	dM : 18.31(SD 2.41)
	SD	30.87	28.46	
성 적 평 균	M	82.75	79.08	dM : 3.67 (SD 2.34)
	SD	4.70	7.04	
사 례 수		37	35	

dM : G1과 G2의 평균차

(표 IV의 해설)

① 〈표 II〉에서 G1의 사례수가 47명인데 37명으로 조정 한것은 配雙法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② 성적백분위점수 평균은 G1이 82.75(SD 4.7)이며 G2가 79.08(SD 7.04)로 나타났다. 이



는 G1이 동일집단인 반면에 G2는 수·물·화 3개 학과의 집합집단으로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남을 볼 수 있다.

③ 학습습관검사 총점평균치는 G1이 64.04(SD 30.87)이며 G2가 45.73(SD 28.46)이며 총점의 차이로 보아 G2의 성적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ㄷ) 인문대(G1) 및 자연대(G2)의 학습습관검사 총점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표 V>와 같이 도표를 작성하였다.

<표 V> G1, G2 학습습관 검사총점 점수와 학업성적 백분위 환산점의 상관도표 G1 : /, G2 : /

성 적 (백분위 점수)		검사총점 점수 (백분위 점수)										fy
		0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95~99	G1											
	G2											
90~94	G1										/	1
	G2									/	/	2
85~89	G1			/		/					##	8
	G2			/		/		/		//	/	6
80~84	G1						//	///	//	//	///	13
	G2		//	//		/	/			//	/	9
75~79	G1		/	/	/	//		/	/	/	/	9
	G2	//			//	/	//		//			9
70~74	G1	/		//								3
	G2	/	/			/	/	//			/	7
65~69	G1	/	/									2
	G2	/										1
60~64	G1	/										1
	G2	/										1
0~59	G1											
	G2											
fx	G1	3	2	4	1	3	2	4	3	3	12	37
	G2	5	3	3	2	4	4	3	2	5	4	35

G1의 상관계수 .73

G2의 상관계수 .31

(표 V의 해설)

① G1의 경우 학습습관검사 총점과 학업성적 백분위 점수와의 相關係數는 .73으로 상관성이 높다.

② G2의 경우는 .31이므로 상관성이 있기는 하나 낮다.

③ G1의 경우는 동일집단이며 G2는 自然系列의 학생이기는하나 수학 물리 화학 3개 학과를 집합한 집단인데 그 相關係의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다.

〈표 VI〉 학습습관검사 평균 백분위 점수 25점이하 및 75점 이상자와 학업성적 평균 점수와의 비교표

연 도	요 인	학 과						계	비 고	
		영문과	국문과	사학과	독문과	불문과	자연대			
'80	75점 이상	N	6	—	5	—	—	—	11	+3.5
		M	85.1	—	84.8	—	—	—	85	
	25점 이하	N	2	—	4	—	—	—	6	-3.5
		M	81	—	82	—	—	—	81.5	
'81	75점 이상	N	20	10	12	4	4	8	58	+7
		M	87.5	89.8	85.4	85.7	90.0	83.2	86.9	
	25점 이하	N	4	0	2	1	4	1	12	-7
		M	82.7	—	85.2	79.2	84.7	68.1	79.9	
'82	75점 이상	N	2	5	10	7	5	—	29	+2.8
		M	87.8	82	85.5	88.8	88.0	—	86.4	
	25점 이하	N	2	3	4	1	3	—	13	-2.8
		M	83.2	84.5	83.1	85	81.6	—	83.5	
'83	75점 이상	N	15	10	12	4	3	8	52	+7.6
		M	83.3	84.1	85.1	83	85.4	82.8	83.9	
	25점 이하	N	5	5	1	0	0	8	19	-7.6
		M	74.6	82.5	69.2	—	—	79.1	76.3	
'84	75점 이상	N	15	10	9	9	9	—	52	+5.4
		M	86	88	84.2	84.1	86.2	—	85.7	
	25점 이하	N	11	4	5	0	0	—	20	-5.4
		M	81.2	80.4	79.5	—	—	—	80.3	
계	75점 이상	N	85.9	85.9	85.0	85.4	87.4	83.0	85.4	+5.5
	25점 이하	M	80.5	82.4	79.8	82.1	81.1	73.6	79.9	-5.5

비고는 검사점수 75점과 25점간의 차이를 보여줌(참고 표 VI-2)

N: 사례수, M: 성적평균

④ 또다른 原因은 相對評價에서 오는 결과라고 추정해 보고 계속 탐색해보기로 한다.

(4) 학습습관검사점수 75점이상자와 25점 이하자를 선정하여 학업성적을 비교하였다.〈표 IV〉  
(표 VI의 해설)

① 80년도에는 검사점수 75점 이상의 학생은 성적평균이 85점인데 비하여 검사점수 25점 이하의 학생은 81.5이며 그 차는 3.5점이다.

② 81년도는 검사점수 75점 이상의 학생은 성적평균이 86.9인데 비하여 25점 이하의 학생은 79.9이며, 그차는 7점이 된다.

③ 82년도는 검사점수 75점 이상자의 성적점수가 86.4인데 25점 이하자는 83.5점이며 그차는 2.8로서 가장 정선된 학년이라고 추정된다.

④ 83년도 75점 이상자의 성적점수가 83.9인데 비해서 25점 이하자는 76.3점으로 그 차는

7.6이며 성적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학년이므로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⑤ 84년도는 75점 이상자의 성적점수가 85.7인데 비해서 25점 이하자는 80.3점이며 그 차는 5.4가 된다.

⑥ 80—84년까지 G1의 75점 이상자는 평균 85.94이며, G1의 것은 85.0이다. G1의 25점 이하자의 성적평균은 80.54이나 G2의 25점 이하자는 73.6이다.

위에서 추정한대로 G2의 성적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75점 이상자의 두 집단간의 차보다 25점이하의 차가 약 7점이나 된다는 것은 학습습관검사결과로 볼 때 학습습관이 학업성적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있다고 추정된다.

(5) 標準集團의 學習習慣檢査要因과 教養 및 專攻成績과의 相關性

ㄱ) 83학년도 대상자중 人文大와 自然大를 표준집단으로 선정하고,

ㄴ) 상관관계를 다룰때 학습습관과 학업성적과는 점수의 가치기준이 다르므로 적정표집집단을 선정한 후에는 등위를 매기고,

ㄷ) 인문대와 자연대의 등위차 相關係數를 산출하였다.

ㄹ) 대상학생의 학년진급에 따라 학습습관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ㅁ) 대상학생의 학적부에 명시된 교양과 전공영역을 구분하여 학습습관검사 요인과의 相關度를 산출하였다. < 표 VII >

<표 VII> 표준집단의 학습습관요인과 교양 및 전공성적과의 상관관계

성 격	학습습관요인		동기요인	기술요인	여다요인	총 점	비 고
	인문대	자연대					
교 양	인문대	2	.62	.64	.52	.58	.20이하 거의 상관 없다. .20~.40 상관 있으나 낮다. .40~.70 확실히 상관 있다. .70~.90 상관이 높다. .90~1.00 아주 상관이 높다.
		3	.64	.67	.53	.60	
	자연대	2	.43	.50	.37	.49	
		3	.42	.46	.36	.47	
전 공	인문대	2	.58	.59	.52	.61	
		3	.62	.62	.53	.58	
	자연대	2	.42	.37	.32	.39	
		3	.43	.40	.32	.38	

(표 VII의 해설)

① 人文大生の 교양과목 이수에는 2학년의 검사총점과의 相關係數가 .58이고 3학년이 .60으로 확실히 상관이 있다. 자연대생의 교양과목이수는 2학년이 .49이며 3학년이 .47로 人文大에 비하여 낮기는 하나 확실히 상관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人文系 중·고교에서 형성된 학습습관이 大學入學後 人文大生에게는 교양과목을 학습하는데 매우 有意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自然大生の 경우는 그 相關度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더 연구해 볼만하다. 즉 1개년간의 결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② 人文大生은 2학년보다 3학년에 올라갈수록 학습습관과의 상관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학습습관이 人文계열에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자연대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갈수록 고등학교까지의 학습습관과는 거리가 생기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연계열의 학습습관 형성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양과 거리가 있는 편중된 교육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④ 인문대의 전공과목에 있어서는 2학년이 .61이고 3학년이 .58인 것으로 보아 역시 교양과목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배의 학습습관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자연대의 전공과목과의 상관도는 2학년이 .39이고 3학년이 .38인 것으로 보아 학습습관 점수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相關이 있기는 하나 낮게 나타나는 것은 대학입학후 독자적으로 전공과목이수를 위한 학습습관이 재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교배의 자연과학습이 대학교육을 받을만한 영향력있는 학습습관을 형성시키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추정된다.

⑥ 人文大生の 경우 動機·學習要領 및 餘多要因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양이나 전공에 영향력이 있고 특히 기술요인이 다른요인보다 교양에서는 .64→.67 전공에서는 .59→.62로 확실히 상관이 있다고 본다.

⑦ 자연대의 경우 동기요인에 있어서는 교양이나 전공과목이수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는 하나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은 교양에서 .43→.42이고 전공에서는 .40→.43인 것으로 보아 추정할 수 있다.

⑧ 특히 자연대의 경우 기술요인에 있어서는 교양에서 2학년에 .50이 3학년에 .46으로 감소되고 전공에서는 2학년에 .37에서 .40으로 변화된 것은 자연대학생에게 있어서는 전공과목에 있어서 학습습관과 성적과는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학습습관 형성이 자연계열학문을 이수하기 위한 학습습관이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⑨ 여다요인에 있어서 자연대생은 교양에서 .37→.36, 전공에서 .32→.32로 상관도가 있으나 人文大生과 비교해 볼때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 중·고등교육에서 자연계열 학습을 위한 학습습관을 형성시켜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VIII-1〉 '83학년 입학자중 재학생과 군입대자의 성적 비교표

집 단	구 분	N	요 인	성 적	비 고
83학년도 입학자(현재 4학년)	M	32		85.2	dM : 6.9
	SD			3.81	
군입대자(2-2, 3-1 수료)	M	18		78.3	
	SD			8.23	

dM : 비교집단간의 성적평균차

(6) 83학년도 入學者中 재학생과 軍入隊者 및 복학자의 성적과의 相關關係 조사. <표 VIII-1, VIII-2>  
(표 VIII-1의 해설)

① 83학년도 入學者中에서 軍에 入隊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재 4學年 재학생과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만을 수료하고 軍에 入隊한 者를 학과에 相關없이 무작위 추출하여 백분위성적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했다.

② 군입대자의 사례수가 적은것은 학과별 형평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③ 재학생의 표준편차가 3.81로 낮은 것은 그만큼 성적분포가 고르다는 의미이고 군입대자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사례수가 적은 반면에 표준편차의 값이 재학생보다 크다는 것은 성적의 個人差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두집단간의 성적평균차가 6.9로 나타난것은 비교적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은 軍으로 진로를 定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반해 군입대로 進路를 정한 학생은 학습결손으로 因한 학업의욕상실의 결과로 이와같은 점수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II-2> 군입대자의 성적과 복학자의 성적 비교표

집 단	구 분	N	요 인	성 적	비 고
군입대자(2-2, 3-1 수료)		18	M SD	78.3 8.33	dM : 10.1
'82학년도 복학자의 '83년도 성적		16	M SD	88.4 4.53	

입대당시의 집단과 복학후의 집단은 동일집단이 아님  
dM : 비교 집단간의 성적 평균차

(표 VIII-2의 해설)

① 군입대자의 성적산출은 <표 VIII-1>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복학자의 성적은(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성적)의 평균성적이다.

② 입대당시의 성적을 산출한 집단과 복학자 집단의 성적산출집단은 동일집단이 아니다.

③ 82학년도 복학자의 83학년도 성적평균이 군입대당시 집단의 성적평균과 비교해볼때 10.1이나 높은 것은 복학생이 현실에 직면한 강한 목적의식으로 因해 동기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④ 이로볼때 동기적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7)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환경적요인을 다음 <표 IX>에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IX의 해설)

① 국어지식은 주로 文化施設과 아버지의 學力과 相關이 있으며,

② 산수는 文化施設이나 父母의 職業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③ .40미만은 상관이 있으나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X〉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환경요인과의 상관도

학업변인	환경변인			학업변인	환경변인		
	문화환경	부의학력	부모의직업		문화환경	부의학력	부모의직업
듣 기 능 력	.247	.270	.282	국 어 지 식	.411	.404	.386
어 휘 력	.352	.330	.345	산 수	.418	.398	.406
독 해 능 력	.324	.343	.332				

r : 0.67 이상이면 p < .001

### 3. 要約 및 結論

(1) 학습습관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있음을 자료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人文大(G1)는 .73으로 상관이 높으며, 자연대(G2)는 .31로 상관이 있기는 하나 낮은 편이다.

(2) 5년간의 인문대(G1)의 검사점수 75점 이상자의 성적평균은 85.94인데 비해서 자연대는 85.0이며, 25점이하자는 80.54에 비하여 자연대(G2)는 73.6이다. 즉 두 집단의 75점 이상자는 0.94의 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적의 차이가 별로 없으나, 25점이하자의 두집단의 차는 약 7점이 되므로 학습습관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 학업성적도 향상되지 못함을 추정할 수 있다.

(3) 人文大生은 교양이나 전공이수를 위한 학습습관의 기초가 이미 다져졌다고 볼 수 있으나 자연대생의 경우는 부족하거나 적절한 학습습관이 형성되지 못했다는것을 발견하게되었다. 그러므로 자연대생은 입학후 교양이수나 전공을 이수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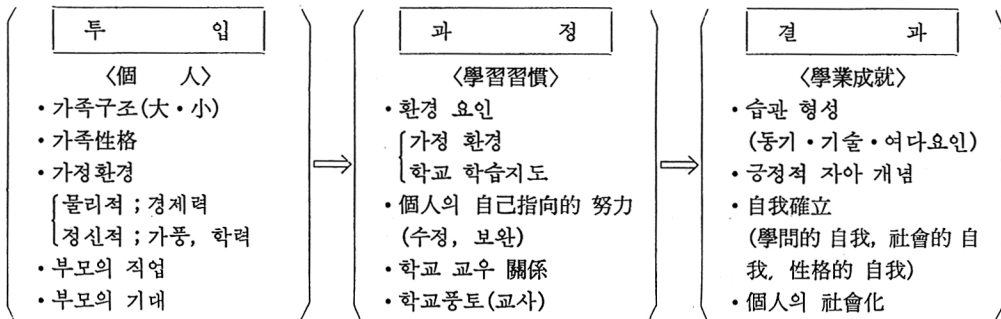
(4) 83학년도 입학후 계속 4학년까지 재학한 학생과 도중에 軍入隊한 학생과 군복무후 복학한 학생들의 경우는 동기요인이 학업성적에 크게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學習動機 誘發의 機能은 검사를 통해서 自己의 학습 分量을 확인하여 그 缺損部分을 보충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 동기가 유발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학생의 學業成就度 增進을 위해서는 目的指向의인 動機要因이 중요한 요인이며 동기유발은 학생 자신의 現在의 처지와 장래의 진로에 관하여 확실한 이해와 洞察力을 길러주는 여건이 된다. 따라서 目的意識을 가지고 학습의욕을 돋우어줄 때 비로서 학생의 학업성적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本校의 自然大生이 人文大生보다 동기가 약한것이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자연대생이 이미 人文系高校에서 형성된 학습습관을 가지고서는 대학 입학후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학습 부적응 상태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공과목을 爲한 다른 각도의 동기와 학습요령을 터득해야함을 理解시켜야 하며 自身의 學習方法 결손을 찾아내어 自己指向의 學習習慣形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인문대생의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양이나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이미형성된 학습습관의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됨으로 더한층 높은 학습목표를 設定하고 學習意慾에 부응되는 교재선택과 교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학습요령을 터득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강구하여야 할터이나 현행 상대평가 一色的 성적평가방법으로는 바람직한 수준을 교수가 설정하여 학업성적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하기에는 모순이 있음을 발견케 된다.



학습습관 변인과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성의 일반적모델

學習習慣要因과 學業成績間的 相關關係性의 一般的 모델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봄으로써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自我概念과 학업성적과의 相關性에 對한 연구결과는 초·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자아 개념의 점수가 낮으면 학교성적도 부진하게 된다고 先行研究에서 지적하였다.<sup>23)</sup>

그런데 학업성취에 있어서 학습습관이 미치는 영향력 여부를 알아본 결과 대학입학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습습관이 인문대생에게는 유의미하지만 자연대생에게는 중·고시절에 형성된 학습습관이 별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進路와 適性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학습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한 개인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 육성발달시키고 아울러 나아가서 自我를 실현시키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적성에 맞고 능력에 맞는 학과목,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학습습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야기되는 학습부적응 상태는 학생으로 하여금 심한 좌절감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는 협력하여 자녀들의 올바른 학습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학습습관검사와 학업성적간의 상관도를 集團別로 比較하여 結論을 맺었으나 個人別 相關性은 앞으로 더욱 個人指導過程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다른 要因의 영향력도 探索할

23) 조의숙, 社會化와 人格形成—학사경고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자아개념의 요인연구, 숭전대 논문집 제11집 pp. 42-45, 1981 재인용

수 있게 될것으로 생각되어 實態調査의 단계에서 끝 맺고저 한다.

### 參 考 文 獻

- ① 김기석, 학습습관검사 실시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링 서비스 1963.
- ② 金宗西, 現場研究法の 理論과 實際, 서울;배영사, 1968.
- ③ 朴慶淑, 李蕙先, 학업에 대한 自我概念, 態度, 學習習慣檢査開發에 關한 연구, 韓國教育 3권 1호(6월호)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76.
- ④ 朴商浩, 金龍來, 教育評價, 教育學講義叢書, 서울;世光公社, 1976.
- ⑤ 方順同, 教育評價(改訂版), 서울, 法文社, 1980.
- ⑥ 신봉균, 학업부진최소화를 위한 지도기술, 教育研究 10월호, 서울;韓國教育生産性研究所 教育研究社, 1977.
- ⑦ 이광용, 원호식, 학생연구, 제 7권 2호, 서울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1970.
- ⑧ 李榮德, 教育的 過程, 서울;培英社, 1977.
- ⑨ 李炯得, 金滄塚, 「학업부진 대학생들의 心理의 特性和 學習習慣의 變容 및 自己統制力의 발달이 그들의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指導相談, 창간호 1973. 3, 啓明大學學生指導研究所
- ⑩ 林鎮權, 教育評價, 서울;實學社, 1976.
- ⑪ 정범모, 이성진, 학업성취의 要因, 교육과학신서, 서울;교육출판사, 1981.
- ⑫ 정범모 외, 教育評價, 現代教育叢書 4, 서울;大韓時報社, 1960.
- ⑬ 조의숙, 「社會化와 人格形成—학사경고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자아 개념의 要因研究」송진대 논문집 제11집, 1981.
- ⑭ 洪承稷 역, 社會心理學, 서울;박영사, 1983.

#### <잡지 및 보고서>

- 새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80~86.
- 大學教育,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85~86.
- 學校學習評價의 當面課題와 改善方向, 教育評價 세미나 보고서, 서울;中央教育評價院, 1985.
- *Educational Leadership*,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85~86.
-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85~86.

#### <附錄—圖表 目次>

- 표 I 검사지 회수현황
- 표 II 학습습관 검사의 연도별·학과별·요인별·평균백분위 점수의 비교표
- 표 III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의 백분위점수 환산표
- 표 IV G1, G2의 각요인별 비교표
- 표 V G1, G2의 학습습관 검사 총점 점수와 학업성적 백분위 환산점수의 상관도표
- 표 VI 학습습관검사 평균 백분위 점수 25점 이하 및 75점 이상자와 학업성적 평균점수와의 비교표
- 표 VII 표준집단의 학습습관 요인과 교양 및 전공과의 상관관계
- 표 VIII-1 '83학년 입학자중 재학생과 군입대자의 성적비교표
- 표 VIII-2 군입대자의 성과 과 복학자의 성적비교표
- 표 IX 학업성취 요인